

“낙후된 도서관에 문화적 갈증”

무주군의회 5분 발언서
이해양·박찬주 의원
지역현안문제 대책 촉구



무주군의회 이해양(사진 왼쪽) 의원과 박찬주(사진) 의원이 19일 열린 제 26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해양 의원(무주군 가선거구)은 “현재 무주군에 2개의 공공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존재하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책을 읽고 빌리는 단순한 기능에만 머물러 있어 군민들이 문화적 갈증을 느끼고 있으므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정적인 공간

에서 놀이 및 휴식과 체험, 교육 등 다목적의 도서관을 새롭게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가정 ‘도서관추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무주군의 평생학습,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주 의원(무주군 나선거구)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부지 선정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여 갈등을 만들고,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은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12%의 가동률과 전력 사용량이 피크인 겨울철 밤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적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72배에 달해 오히려 환경과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산시대 발생 가능성도 높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주군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게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 군수는 지난 18일 원주 삼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국토 19호선 번암면사무소 앞 국도선형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국가예산확보’ 발품 파는 장영수 장수군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현안사업 건의... 예산 4000억 시대 실현에 매진

장영수 장수군수는 2019년도 국비에 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 18일 원주 삼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국도 19호선 번암면사무소 앞 국도선형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건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 19호선 번암면사무소 구간은 도

로 폭이 협소해 상습교통 정체, 교통사고 빈발, 상가가 도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돌진과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시급히 선형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그밖에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장수군의 입장을 밝히며 면담을 가졌다.

장 군수는 “앞으로도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에

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군수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힘센 장수, 예산 4천억 시대를 공약 실현하기 위해 전북도와 중앙부처, 무엇보다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은 장영수 군수가 발 벗고 나서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생으로 먹는 옥수수가 있다.

진안, 초당옥수수 본격 수확
생식 가능 고당도 인기만점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19일 간식용 풋옥수수 가운데 당도가 가장 높고 생식이 가능한 초당옥수수를 본격 수확한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정천면에 3ha를 보급했으며, 지난 5월초 파종하여 현재 출하 중으로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당옥수수는 간식용 풋옥수수에 속하는 초감미종으로 당분 함량이 높아 설탕옥수수로도 불린다.

초당옥수수는 단옥수수에 비해 수확 뒤 당도를 유지하는 시간도 더 길고, 저장력이 뛰어나 더 오랜 기간 동안 냉장고에 보존해 놓고 먹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논개시 퍼포먼스 대회 개최

장수군은 ‘의암 추모개념 탄신 제 44주년 기념 및 제8회 전국 논개시 퍼포먼스대회’를 장수 한누리전당 2층 소공연장 오는 21일 오후 1시에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시의암추모개념신상협회(회장 김순홍)주최, 전북재능시낭송협회 장수지부(지부장 최영희)주관, 전라북도, 장수군, 한국문인협회 장수지부, 투어컴후블여행사 공동후원으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논개골 장수를 사랑하는 전국 시낭송가들이 애국충절의 표상인 의암추모개념의 탄신 제 44주년을 맞이하여 충(忠), 의(義), 열(烈)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국 시낭송 대회이다.

1부 행사는 한병태 문인협회 장수지부장의 개회선언과 장영수 장수군수 축사와 김종문 장수군의회의장·박용근 도의원 격려사로 진행되며, 2부는 테너 김두환 사회자의 진행으로 10개 참가팀이 열린 시낭송대회가 펼쳐진다.

3부 행사는 시극, 가요극, 합창 등 특별 축하공연 및 시상식은 국회의장상(1팀), 도지사상(1팀), 장수군수상(2팀), 장수군의회의장상(2팀), 논개시낭송회장상(4팀) 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한풍루 강암선생 진본 현판 내걸어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해 있는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한풍루가 지난 18일 진본 현판을 달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한풍루 현판은 조선시대 명필 한호(석봉)선생과 현대 송성용(강암)선생이 쓴 것 2개로 이날 설치된 것은 강암 선생(1913~1999)의 작품(190×73cm)이다.

강암 선생은 한국 서예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호남 대표 서예가이자 유학자로 그의 서예는 고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김점미 문화예술 담당은 “그간 분실과 훼손우려가 있어 최북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강암선생의 진본을 찾아내게 됐다”라며 “조선시대 유물로서 역

사적 가치가 있는 한호 선생의 작품(135×55cm)은 보존처리 후 다시 수장고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무주 한풍루(1465년 건립 추정, 연면적 154.9㎡ 2층 누각으로 지붕이 이익공(二翼工)형태)는 무주부 관아에서 세위 명사와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선조 때 문신 임제는 무주 한풍루를 호남의 삼한(三寒 무주 한풍루寒風樓, 남원 광한루廣寒樓, 전주 한벽루寒碧樓)중 으뜸으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936년에는 영동 양산면 가곡리 금강변으로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며 1960년대에 비로소 한풍루복구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한풍루를 1971년 무주군 무주읍 지남공원 내 현 위치로 이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진안군은 영농철 농업기계 교통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고, 일반차량과의 사고 역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농기계 운전자의 의식 변화를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소형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질 피해도 있지만 농촌에서는 작기 농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운전자는 반드시 평소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농기계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